

“20~30대 젊은 세대 다중시설 이용 자제를”

광주시, 방학·휴가 시즌 코로나 빠른 확산 우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검토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20~30대 젊은 세대에 대해 다중 시설 이용 자제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학 방학과 여름 휴가시즌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젊은층의 광주·전남 고향집 방문이 급증하고, 이들을 매개로 감염속도가 빠른 수도권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섭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세가 두드러졌던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동 경로와 활동시간이 짧은 반면 젊은층은 하룻동안 많게는 10곳이 넘는 식당과 술집 등을 방문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특성 탓에 집단감염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우려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동구 호프집 관련 7명, 광산구 주점 관련 3명, 타지역 확진자 관련 2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2명 등 모두 16명(누적 3330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산구 주점에서는 20대 중사자가 26일 확진된 뒤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동구 동명동 호프집 2곳에서도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0대 6명, 30대 1명이었다. 동구 동명동 호프집 집단 감염은 최근 광주 부모집을 다녀갔던 서울 강남구 거주 20대 회사원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된 사례다. 서울 강남구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지난 24일 이동 동선에 광주 호프집이 포함된 사실을 광주시에 전달했고, 당일 호프집 이용자 87명을 긴급 검사해 7명 확진판정, 74명 자가 격리 조치 됐다.

광주시 방역 관계자는 “강남구의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뻔 했다”면서 “최근 주중연출을 보면 활동이 왕성한 20~30대가 대부분이고, 여름 방학과 휴가까지 겹치

면서 수도권에서 지역을 찾는 젊은층도 많아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분간 다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광주에선 지난 6월 말 대학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0대 126명, 30대 75명 등 20~30대가 201명으로 52%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주점)과 호프집, 카페 등에서 감염됐다.

젊은층의 감염이 늘면서 광주의 일일 확진자도 24일 13명, 25일 18명, 26일 23명, 27일 2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감염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도 16명이나 추가됐다.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감염세를 지켜본 뒤 4단계 격상 등 가장 높은 방역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는 등 일상 생활 대부분이 제약을 받게 된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990명이 됐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주로 여수 등 동부권 도시와 목포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남 역시 1주일 이상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적게는 15명, 많게는 28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특정 연령대가 확진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완도지역 외딴 섬, 유치원, 학원, 유흥시설, 식당, 여행지 등 장소와 관계없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지역에 번지면서 이전과는 달리 잠복기 없이 하루 이틀 만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폭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펜싱 男 사브르 올림픽 2연패 짚렸다



28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결승전.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확정짓고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길·김정환·오상욱·김준호 이탈리아 45-26 제압 ‘금메달’

한국 펜싱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2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관련기사 18·19·21면> 구본길(32), 김정환(38·이상 국민체육진흥공), 오상욱(25·성남시청), 후보선수 김준호(27·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28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26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9년을 기다려 만든 2연패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맨 중목 로테이션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한국 펜싱은 대회 첫날이었던 24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나온 김정환의 동메달을 시작으로 27일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남자 대표팀이 펜싱 세 번째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만행” 김정환은 개인전에서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세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고, 네 번째 메달은 금빛으로 장식했다. /김여욱 기자 wool@kwangju.co.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 학동참사, 불법공정·부실관리·안전불감 ▶6면
- DJ와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 ▶16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솔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로이터 통신이 28일 정부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진서를 교환함으로써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추구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일정이나 다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협약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라며 “대면 회담이 최선인데 상황이 좋아 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소식통은 “회담 정상회담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또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재건 위치는 개성이 아닌 판문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로이터 보도를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또는 화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

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넷물을 건너가다 보면 징검다리도 필요하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하나의 징검다리로,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달과 비핵화”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9월, 교육현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교육현장의 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협력 기업 참여 안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개소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현장 맞춤형 에듀테크를 발굴하고, 새로운 미래교육모델을 만들어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 설명회 8월 개최(세부정보 www.keris.or.kr 참조)
■ 문의처 : 053-714-0381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에듀넷·타클리어, e학습터 등 원격수업 지원 서비스 운영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한 학술정보 공유·유통
- 나이스(NEIS),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서(EPK) 운영·관리
- 지능형 교육데이터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